

## 여성장애인의 통합적 재활과 Sexuality

이 예 자\*

### 머 리 말

사회는 여러 계층의 구성원이 서로의 능력을 합하여 하나의 조화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이다. 이 속에는 있어서는 안되지만 그러나 업연히 존재하는 계층간의 차별이 있게 마련이다. 가진 자와 못가진자, 배운자와 못배운자, 남자와 여자 그중에 하나가 되는, 몸이 건강한 사람과 장애로 인하여 몸의 일부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격차는 크다. 그 중에서 여성으로서 장애를 갖은 사람은 당연히 2중, 3중의 차별의 고통을 우리사회에서 안고 살게 마련이다.

여러 종류의 인권운동과 여성운동, 장애인 운동이 우리시대를 휩쓸고 지나갔어도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인권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아온 적이 아직 없다.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그들만의 고유한 고통으로 남아있을 뿐이며, 많은 운동과 연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다.

여성장애인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사회는 아직 모르고 있을뿐더러 그들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무시하기 조차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이렇다 할 만큼 공신력 있게 내놓을 것도 없으며, 이러한 때에 여성장애인의 sexuality에 대한 공론은 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고로 이 문제의 접근은 따로 때

이놓고 하기보다는 여성장애인의 재활의 전체의 맥락 속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

먼저 여성장애인의 문제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 고용,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은 여성장애인의 sexuality를 형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인 영향을 알아보고 case study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sexuality에 관하여 접근해 보려고 한다. 다음은 각 장애인복지원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program 속에 열린류 sexuality에 관한 비중이 있는가를 조명하여 본 후에 결론을 맺으려 한다.

### I. 여성장애인의 일반적인 상황의 이해 - 직업, 교육, 결혼(서울시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 <직업>

구분	계		남		여	
	계	%	계	%	계	%
상업	16,841	21.3%	13,345	23.9%	3,496	15%
공무원	755	0.95%	588	1.1%	167	0.7%
회사원	11,115	14%	8,624	15%	2,491	11%
학생	3,598	4.5%	2,498	4.5%	1,100	5%
무직	46,889	59%	30,763	55%	16,120	69%

\* 서울시의회 의원

여성장애인을 직업을 통해서 볼 때 무직이 70%나 되며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제도권에 들어가서 직업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하력의 수준에는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갖는 일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통계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들 여성장애인이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는 해고당하기 쉽고, 월급이 적거나 복지혜택이 적은 곳에 주로 몰려 있으며, 많은 수가 가내수공업에 종사하고 있고 밖에서 일하는 경우, 착취를 당하기 쉬운 형편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교 육>

구분	계		남		여	
	개	%	개	%	개	%
무 학	14,803	19%	9,616	17.2%	5,187	22%
국 졸	17,935	22.6%	12,725	22.7%	5,210	22.2%
중 졸	18,041	23%	12,697	22%	5,344	23%
고 졸	22,315	28%	16,032	28.7%	6,283	28%
대 졸	5,617	7%	4,345	7.7%	1,272	5.4%
대학원졸	487	0.6%	403	0.7%	84	0.3%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하여 교육지수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학과 국졸이 44.2%가 되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고등학교까지는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다가 대학과 대학원에 가서는 남·여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단위로 보면 남·여의 차이는 현격하며, 아직도 여성장애인은 양육의 대상일뿐 교육의 대상은 아니라는 잘못된 가정과 사회의 인식으로 많은 여성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 program이 개발되고, 보다 전문성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독립된 인격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정책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 혼>

구분	계		남		여	
	개	%	개	%	개	%
기 혼	51,488	65%	36,581	65.54%	14,907	63.76%
미 혼	27,710	34.99%	19,237	34.46%	8,473	36.24%

결혼을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여성 65%, 남성 66%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전국을 볼 때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결혼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이는 유교의 전통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장애를 가진 여인을 머느리로 삼으려는 가정이 거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부모의 허락 없이 동거해서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가 많이 있으며, 결혼을 만류하는 주위의 영향과 결혼의 지속성 어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다.

II. 여성장애인의 sexuality의 형성

1. 사회 문화적인 영향 : Body-image

여성장애인에 관한 연구가 없다는 것은, 여성장애인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가나 연구할 만한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의 반영이기도 하다.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비장애인 여성과 꼭 같지는 않지만, 여러 면에서 공통적인 현상을 갖고 있다.

여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회적으로 정체화시킨다. 서구의 문화적인 틀 속에서는 여성의 신체(몸)가 나약해 보이는 것은 종종 건강이나 성공에 맞먹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몸의 크기, 무게등... 외모에 일경을 쓰게끔 가르쳐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더이상 서구의 현상이 아닌 우리의 상황이기도 한 것이다.

최근의 문화의 표준(NORM)이나 이상형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성취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똥똥"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동성애자, 성전환 여성...은 사회의 일정한 기준(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문화 속에서 이질적인 경험을 가졌다는 결과로 소외계층으로 남게 된다.

이 사회 속에 사는 여성장애인들도 어떤 것이 여성에게 바람직하다,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다. 사회가 시사하는 메시지의 영향권으로부터 이 메시지는 내면화되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영향력을 끼친다. 우리 스스로를 일반대중의 미의 기준에 맞추어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의 image는 더욱더 고통을 받게된다. 여성장애인은 자신의 몸매를 음식조절이나 운동을 하거나 의료적인 방법까지 동원시켜서 조절하려고 들것이다.

우리는 초기 유년시대에 이미 우리자신의 image를 형성하게되며 주위의 반응이나 평가에 의해 고착화된

거나 변화된다. 여성장애인은 신체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 다양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심지어는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어야 한다. 사회는 신체적인 매력의 결핍은—지배문화가 정의했듯이 가까운 관계를 맺는 능력에 방해가 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그릇된 개념은 신체적 차이를 뛰어넘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며 body-image에 대한 불만족을 영속시키며 거식증을 일으키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장애를 갖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의 삶에 media에 반영되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여성장애인은 눈에 안 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말하여 줬을 때, 그들의 삶은 로맨틱하거나 의존적인 어린애로 비추어지거나, 분노한 괴물이거나, 영웅으로 잘못 그려지기 일수이다.

이것은 여성장애인을 대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증폭시키고, 따라서 여성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他人”의 감정을 고착화된다. 즉 서로간의 이질감만 늘게 된다는 말이다.

여성장애인으로서는 혹은 개인으로서 종종 받는 메시지는 사회가 별다른 역할의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젊은 여성장애인들은 장애가 없는 몸, 비장애인의 신체적 소신이 이상적이라는 신화가 대무문의 광고물에서 범람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삶을 움추리게 된다.

한번 이러한 메시지가 내면화되고 강화되면, 여성장애인들은 그들의 장애를 가능한 한 비장애의 “표준”으로 기꺼워지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많은 비장애여성의 경험처럼, 어떤 장애여성들은 그들의 몸을 감추거나 외모를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다. 편안함이나, 건강은 지속적인 다이어트나, 여러 종류의 신체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소위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희생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여성학 이론이 서양문화속에서 여성의 몸이 남성의 즐거움과 지배를 위하여 대상화 되어있다는 현실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현실의 결과로 여성자신의 정체감과 그들의 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자신의 경험과 판단력을 신뢰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다.

이러한 실질적인 내용은 지배문화에 의해 정의된다. 즉,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권력이 있는 백인,

비장애자, 영웅 등에 의해서 정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의 한 예로 직업이나 안정을 위하여 기회로 착을 위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품화”가 되었다.

여성의 육체가 미디어에서 상품으로 그려지는 방법은 소위 장애라는 딱지가 붙은 여성의 현실이 아닐지는 모른다. 장애에 관한 사회적 믿음을 반영함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는 지배의 목적을 위하여 대상화되어 있으나, 그것은 다른 정황에서이다. 전통적으로 장애는 그것이 눈에 띄었던 아니던 간에 바탕적이지 않은 어떤 것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던, 후천적으로 장애가 되었는지 우리의 육체는 의도파장의 일부로서 내상화되었다.

의료적인 실험이 남성의료인에 의해 취해진다. 그들의 선문인이라고 할지라도 환자에게는 낮모르는 남성의 집단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옷을 입거나 다른 모든 행동들이 옷내기 의사에게는 좋은 훈련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들의 둘러싸임 속에서 관찰된다. 병 그 자체에 관심을 뒀으므로 그들의 몸이 공동의 소유로 다루어지는 것은 긴전한 sexuality의 형성에 방해가 된다.

우리의 대다수가 어린이였을 때 의료행위라는 구실과 가면 아래서 사건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우리의 몸을 남성 의사들에게 보여왔던 경험을 다시 되새겨 본다.

body-image의 개념은 여성장애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몸시 중요하다. 많은 여성장애인들에게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 즉 내 현재의 몸의 생김을 받아들일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장애가 없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와 함께 완전한 몸을 요구하는 부처적인 기대가 더크게 된다.

Body-image, 자존감은, 사회, 가족, 친구에 의해 형성된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장애는 종종 결함(deficit)으로 보여지며, 여성장애인은 여성의 육체가 우리의 경험의 부분도 아니며 우리가 탐을 수 있는 범주에 있지도 않은 것들에 대하여, 지배문화가 상외하기 때문에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실체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 중의 일부는 타인이 우리를 여성으로 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험을 갖는다.

장애와 “다르다는 것”은 우리를 사회의 삶의 변두리에 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성장애인으로 여성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이론에 저항하는 비장애여성 운동가들과 함께 육체적인 美에 도전을 시작해야한다. 그리고 육체의 완전함의 개념도 무시

하거나 확고히해야한다.

장애는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문화가 정의한 것으로서의 완전함이라든가 아름답다고하는것의 개념에 도전해야 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아왔던 것을 개선해야하고 "다른"점은 변화를 위한 창조와 기회의 영역을 불리움을 강조해야 한다. 많은 것들이 여성장애인들의 의해서 창조될 수 있고, 다른점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육체의 조건을 축복으로 받아들임은 의미한다.

## 2. Case study를 통한 연구

### 1) Case I, Ms Junko A Saka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장애인이나에게 사랑은 항상 고통과 공포였다. 그럼에도 젊은 시절부터 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고 많은 남자를 사랑해왔다.

나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공포감이 없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확신감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지금 나는 3년간 남자친구와 사랑하고 있으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다.

태어난 순간부터 매우 부정적으로 취급되어왔다! - 비극이야, 어떻게 저런 몸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태어나지 말았어야해. 자라면서 자신감을 잃고 나 자신을 전혀 사랑할 수 없었다. 20세가 되었을 때 독립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장애인 그룹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후 10년간을 성장기간을 통하여 나 자신을 성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그 인식의 부족함으로 쌓여진 성의 문제들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바쳐왔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된 여성이나 남성으로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의 결함을 갖게된다. 따라서 결혼과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가슴속에 커다란 허상을 만들고 있다.

나는 뼈가 약하여 발육이 지속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내생의 5분의1을 침대에서 보냈으며 이때에 의사들이 함부로 던진 말이나 행동은 내 가슴속에 자국으로 남아있다. 내 몸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껴보지 못했다. 이것으로 인하여 동정받고 거부당하고, 멸시 당했기 때문이다. 칭찬은 받아본적이 없다.

청년기에 들어가면서 남성과의 관계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관계였다. 사랑에 만족감은 없었지만 자신을 얻어가는 길로서 받아들였다. 이 관계는 정신적인 만족감보다는 내 몸이 그에게 얼마나 매력적일 수 있는가가 아내의 관심사였다. 그에게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매우 중요했다.

그것은 여성은 성적대상이 되고 남성은 여성을 의모로 판단하는 전형적인 男女의 관계였다. 그 남자에게 피임을 요구하고 만족을 못 느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내 몸의 용납 요구가 심해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많이 왜곡되었었다.

윤락의 동기는 돈 때문이 아닌, 어린시절의 성의 학대의 경험에서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놓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초등학교 이전의 어릴때에 X-ray가사기 금속성 막대를 사용하여 성적인 학대를 행하였던 기억이 있다. 그 끔찍한 폭력에 소리도 못 지르고 엄마에게 이끄지도 못했으며 이 사건은 나를 싶은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여성장애인은 거부와 모독을 당하면서도 강간은 쉽게 당한다.

그러나 용기를 잃을 것은 없다. 우리의 사랑의 능력에는 한계키 없다.

보다 깊고 정직한 사랑은 장애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며 아직도 우리가 의료진에 의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성숙된 의료진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

### 결 혼

젊은 시절을 청산한 후에 장애인성과 6년동안 살았지만 결혼의 생각은 없었다. 이것은 나의 차별을 감하게 하거나 사회적 신분상승에 도움이 못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장애인과 결혼하면 이 두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마후 6개월간의 미국에서의 공부를 마친 후 비장애인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반대로 8개월만에 갈을 맺고, 지금은 반대가 잘됐다고 생각하지만 때론 슬프고 화가 나기도 한다. 왜곡된 결혼제도가 차별과 인간성의 결핍으로 점철되어 있음에 놀라기도 한다. 여성에게 남편복종이 먼저요, 사랑은 다음이며, 임신의 위대함이 일반적 사회의 문화이다. 나는 여기 어디도 해당이 안돼서 거부당했으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제정된 틀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범 속에 결혼이 산히게 된다면 상여성이 여기에

참여하기는 매우 힘들다.

반대가 없이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성차별로 인하여 균형 있는 관계를 갖기 어려움을 곧 알게되었다. 그와의 8개월 동안 나는 설맞은 아내의 억압을 수 행했고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의 아내로서의 대접을 받았다. 결혼전 그는 그의 친구를 대접하였고 나는 나의 살던 방식대로 할 수 있었지만 결혼후 나는 그의 친구들을 대접할 책임을 느꼈고 내 생활습관을 바꾸어야 함을 느꼈다.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장애인뿐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결혼은 사회에 입문하는 것과도 같다고 믿는다. 그러나 결혼의 의지는 우리 사회가 성차별로 근거하고 있음을 알게된 이후로 모두 내게서 사라져 버렸다. 물론 서로간의 균형이 맞는 관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내 고통을 통하여 알게된 방법으로, 나는 일주에 몇 번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이 매우 편하다.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서로간의 사랑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지금 우리는 사랑과 더불어 노력하며 우리가 배워 온 것들을 신뢰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 2) Case II Lirta Napolitano

장애인에 관한 접근권이나 여러 분야에 걸쳐 장애인의 극복기, 장애인의 권리등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있지만 장애인과 sexuality에 관해서는 글도 없으며 논의도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인들에게 주변사람들이 그들을 성적인 존재로 보는가 질문해 보면 거의가 “NO”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장애인은 성욕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첫째로 사회는 장애인은 다르다, 일정한 사회의 표준(NORM)과는 다르다고 본다. 장애인은 휠체어나 보조기, 크리치, 등을 사용하거나 몸의 일부가 다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일지도 모른다.

아마 성적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으며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장애를 병(sick)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병자와 사랑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장애인 공동체가 부딪치는 가장 큰 도전은 사회가 장애인을 어떤 아들로도 간주하는 데에 있다.

나는 여러번 여러 장애인들로부터 불평을 들어 왔다.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던 우리는 결코 성인이 되지 못한다. 드물게 남성과 여성으로 언급어 되며, 이것이 우리가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주요 요인이라고 본다.”

아이가 성적인 욕구가 있겠는가?

내가 30대 중반쯤에 미성원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성에 관련한 농담을 해서 함께 웃었더니 그 만찬 사람이 내가 그 농담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놀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여인이 “세 웃는 것 좀봐”하고 옆에 여인에게 나를 지칭하며 girl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을 기억한다

그 여인이 장애인이 성적인 농담을 이해하는 것이 이상하고 놀라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당시 나는 아무말 안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나의 웃음에 놀란 이유를 물어보고 내 자신이 스스로 몇 마디 했을 것이다. 이제 침묵의 시간은 지났다. 장애인들은 우리도 다른사람과 다르지 않고 같은 인간임을 알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모두 성적이다. 신체적으로 약할지 모르지만 몸의 일부가 혹은 전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가능케 하고 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연구되어 있다. 아마 장애인들이 옷입기, 목욕, 식사에 도움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가 “아이”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정상적인 성의 요구가 있는 존재이다. 비장애인으로 부터 성적인 느낌을 갖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는 흥미가 있다.

첫 번째 대답은 “물론이죠, 나도 인간입니다. 아닌가요?”

나는 지금은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물고싶다. “당신은요?”

## III.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program

---

접수상담 및 사회전단

---

전화상담 및 내관상담

---

외출, 이미용 서비스

---

날빛, 명설 이웃과 함께

---

취업전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상담, 사후지도
개별상담
방문, 내방상담
신내10-12단지내 거주 대상 욕구조사
자원봉사자와 견연하여 시장보기, 청소, 도배, 김장 등 가사 서비스 제공
방문, 전화, 서신상담
취미, 기술습득, 강연 등
시장보기, 빨래, 청소, 육아보조 등
매월1회 모임 주선
편내 기업 일선
내방, 전화상담
면접후 친목나눔 모임운영
미용상담 운영
자원봉사자와 견연하여 장보기, 세탁, 청소, 밀반찬, 나들이 지원 등
목욕실 운영 및 미용서비스 제공
전화, 내방, 가정방문 등
자원봉사자활용 방문
미용방문 봉사(월1회)
미술, 서예, 꽃꽂이, 메이크업 등 (주1회)
직업적응훈련, 취업지도 등 (주3회)
개인의 심리적인 정보수집 및 진단
결혼욕구 여성장애인에게 관련 정보제공
세탁, 청소 등 가사 보조

#### IV. 결 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장애인들은 그들의 sexuality에 대해서 일아가도록 교육을 받지는 못한다.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의 프로그램에서도 sexuality에 관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sexuality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Sexuality를 sex, 즉 남녀의 특정한 신체의 일부의 접촉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러한 몸의 기능의 일부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인간 자체가 sexuality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이해이며 보다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Sexuality는 특정한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출생부터 죽을때까지의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

감각적인 명에서의 표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생각, 경험, 가치관, 상상, 학습등을 포함한다. 이는 sexuality가 여러 측면을 갖고 있고 또 여러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Sexuality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부상이나 질병으로 잃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 나이 신체적인 장애에 관계없이 성적인 존재인 것이다.

자신에 대해 가치성과 자존감을 갖는 것은 성적인 표현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매력적으로 비취질 수가 있는 것이며 자신을 성적인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타인도 그럴 것이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사랑을 잃었을 때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느끼는 것은 어렵다.

우리 자신의 성적인 인식이 타인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sexuality는 개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의 여러 현상들이 여성장애인이 건전한 sexuality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디어에 비쳐지는 상품화된 여성상, 친구, 가족들이 전달하는 무언의 메시지와 여성장애인을 여성으로 조차도 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인식은 하루마베 개선되어야 할 우리사회의 태도이다.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장애인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기관이라고 보기에는 깊이도 없으면서 장애를 갖은 여성의 깊은 내면을 통찰하여 그들의 진심을 담아내려고 하는 시도는 보기가 힘들다.

더구나 sexuality에 대한 관심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전 인격적인 측면에서 다루려면,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구에서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전 인적인 재활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가야 하리라고 본다. 여성장애인의 sexuality의 새활을 신체의 일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여성정책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이나 장애정책을 만들어내는 정부 기구에서 여성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하며 사회가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성장애인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되리라고 본다. 아울러 건전한 sexuality가 형성 되리라 고 본다.